

이동통신 서비스 경쟁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Motivation Strategies of the competition in the mobile phone service market

이진희¹, 김태성¹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¹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경영연구소 공정경쟁연구팀²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48번지 충북대학교

Tel +82-43-261-3343, Fax +82-43-271-4881

E-mail : kimts@cbnu.ac.kr

키워드 : MVNO, 무선인터넷, 망개방

요 약

가입자수나 트래픽, 매출액 측면에서 이동통신시장의 규모가 유선통신시장의 그것을 능가하는 상황이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9년 11월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유선전화 가입자수를 능가하는 등 급속한 유무선 대체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동통신시장의 성장은 향후에도 3G 서비스의 시작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시장은 추가적인 주파수 부족으로 경쟁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소수의 사업자가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유선통신시장에 비해 규제의 정도도 미약하여 자연스런 경쟁확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3G 서비스 역시 기존 사업자가 주파수를 확보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여서 경쟁확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시장을 기반으로 한 무선인터넷 시장 또한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이 역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라 경쟁유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각 국에서는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사업자들 역시 다양한 각도에서 이동망 면허 없이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서비스제공사업자(SP : Service Provider), 간접접속사업자(IAO : Indirect Access Operator),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와 같은 가상 사업자인데, 근래 특히 MVNO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고 있다. 또한 무선인터넷망 개방은 경쟁활성화 방안으로서 뿐만 아니라 MVNO의 전제조건으로서 갖는 의미도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이동통신시장과 무선인터넷시장에서 다수의 신규사업자가 참여하여 자연스런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써 한창 도입 논의가 일고 있는 MVNO와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대해 알아보고, MVNO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유선통신사업자가 MVNO가 될 때의 수익을 예측해 봄으로써 경쟁활성화 효과를 전

망해 보았다.

이동망 경쟁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서비스제공사업자(SP : Service Provider), 간접접속(IA : Indirect Access),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제도가 있는데, 근래 특히 MVNO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고 있다. MVNO는 정식으로 주파수 사용권한을 보유하는 대신 이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 이상의 이동망사업자의 이동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즉, MVNO는 이동망사업자에게 대체 불가능한 이동통신인프라인 Radio Access Network(기지국, 기지국 제어기, 무선전송 등)를 임대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대체 가능한 인프라인 Core Network(가입자 관리, SIM 카드, 교환국, 마케팅 등)와 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MVNO는 착·발신호 모두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동망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수입구조를 가진다. 이처럼 MVNO는 광범위한 지배력을 보유하여 완전히 독자적인 호 서비스와 요금 패키지를 개발할 수 있으므로, 기존 이동망사업자와의 경쟁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다수의 이동망사업자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국내 이동전화 사업구조가 3사 체제로 재편됐고 추가적으로 망사업을 허가하기 힘든 상황에서 낮은 투자비용으로 경쟁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MVNO 도입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MVNO제도를 도입하기까지는 아직 명확치 않은 MVNO제도의 법적 의무화 규정 여부와 로밍서비스와 상호접속서비스 사이에서의 MVNO의 서비스성격 정의, 기존 이동망사업자들의 설비투자 축소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무선인터넷망의 개방 정도에 따라 그 사업성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무선인터넷망 개방이란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선망을 비롯하여 폐쇄형 포탈, 게이트웨이, 과금시스템 등의 무선망 시스템을 여타 사업자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이는 곧 무선인터넷도 유선인터넷과 같은 'open'성을 확보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말한다. 무선망 개방을 통해 시장 내 경쟁이 활성화되면 무선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은 기술투자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곧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양질의 풍부한 콘텐츠 공급으로 나타나게 되며, 결과적으로 무선인터넷 사용자와 가장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한편, MVNO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유선통신사업자들이 MVNO가 될 때의 예상수익을 가입자, 시장점유율, ARPU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예측해 본 결과, MVNO가 이동통신시장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MVNO제도의 도입·시행은 전제조건인 무선망의 완전 개방, 규제기관의 개입 여부 결정을 비롯하여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과 신규사업자 그리고 사용자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